

WORLD  
**YMCA**



# 세계 기도 주간

2024년 11월 10일 - 16일



자연을 통해  
**믿음으로 나아가기**

물 | 흙 | 불 | 바람

# 목차

3	회장 합동 인사말
4	서문
5	1일차: 믿음으로 폭풍을 뚫고 나아가기
10	2일차: 믿음으로 가뭄을 지나가기
15	3일차: 믿음으로 골짜기를 지나가기
19	4일차: 믿음으로 들판을 지나가기
23	5일차: 믿음으로 불 속을 지나가기
28	6일차: 믿음으로 어둠 속을 지나가기
33	7일차: 믿음으로 세상을 향해 나아가기 (예배: 예배 순서)
38	감사의 글
39	성경 읽기 계획

# 회장 합동 인사말

## 세계 YWCA 및 세계 YMCA 회장단의 합동 메시지

1904년 이래, 세계 YWCA-YMCA 기도주간은 우리의 글로벌 운동을 묵상과 기도의 소중한 전통 안에 하나로 묶어 왔습니다. 매년 11월마다 우리는 공동체의 현재 진행되는 현실과 필요에 관련된 주제 아래 모입니다.

2024년 YWCA-YMCA 세계 기도 주간을 앞두고 우리는 막대한 세계적 문제들에 직면해 있습니다. 전쟁이 중동, 아프리카, 동유럽 전역에서 사람들의 삶과 공동체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체계적인 억압이 아메리카와 동남아시아의 수많은 지역을 휘감고 있으며, 환경 재해—사이클론, 홍수, 그리고 심각해지는 기후 위기—가 가족들을 집에서 쫓아내고 생계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혹한 현실은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며, 삶의 불안정함과 치유, 정의, 그리고 집단적 행동에 대한 긴급한 요청을 상기시킵니다. 이제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는 우리의 믿음과 목적을 모아 하나 되어 평화와 공정의 세계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이러한 고난의 순간들 속에서 우리는 자신을 넘어 다른 이들을 바라보아야 하며, 우리의 믿음, 영적 전통, 그리고 공유된 가치의 힘을 끌어내야 합니다. 기도, 성찰, 또는 묵상을 통해 우리는 고통받는 모든 이들과 연대하고 모이며, 서로를 고양시키고 자비와 정의를 수호할 공동의 의무를 인식합니다. 희망에 뿌리를 둔 믿음은 회복력과 치유의 강력한 상징이 되어, 모두를 위한 보다 공정하고 평화로운 세상을 향한 길잡이가 될 것입니다. 2024년 11월 10일부터 16일까지, 이번 기도 주간의 주제인 '자연을 통해 믿음으로 나아가기'는 믿음이 삶의 수많은 도전들을 헤쳐 나가는 데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를 조명하며, 물, 흙, 불, 바람이 가지는 영적인 특성에서 의미를 끌어냅니다.

세계 YWCA 및 YMCA 운동은 우리를 단단하게 하는 풍성하고 다양한 믿음, 문화, 그리고 관점을 존중합니다. 우리의 아름다운 차이를 기념하고 모두가 공유하는 인류애를 키움으로써, 우리는 공감, 연대, 그리고 정의에 대한 헌신을 키울 수 있습니다. 평생 학습자이자 공동체 수호자로서 우리는 억압받고 소외된 이들과 함께하는 일에 헌신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 기도, 이야기, 그리고 함께 나눈 경험을 통해 우리는 회복력을 고양하고 정의를 위한 공동의 노력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함께 의미 있는 변화를 창출하고 공동체의 더 나은 삶을 증진시키기 위해 끈질기게 노력해야 합니다. 모든 이를 위한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세상을 보장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이번 2024년 세계 기도 주간에 우리는 여러분이 열린 마음과 생각으로 우리의 운동을 강화하는 다양성을 온전히 수용하며 함께하기를 초청합니다. 물, 흙, 불, 바람의 요소를 통해 변함없는 믿음으로 나아가며, 서로 안에서, 그리고 우리가 함께하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발견합니다. 이러한 주님의 임재와의 연결은 세계 YWCA 및 YMCA 운동의 변혁적인 작업을 촉발할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되어 의미 있는 행동을 취하며, 정의, 공정, 그리고 지속 가능한 평화를 약속하는 더 밝은 미래를 향해 나아갈 때입니다.

**미라 리제크**  
세계 YWCA 회장

**소헤일라 하이예크**  
세계 YMCA 회장

# 서문

## 헌신의 활동 주간을 함께 하세요!

세계 YWCA와 세계 YMCA는 1904년부터 함께 협력하여 세계 기도 주간을 조직해 왔습니다. 이 소책자를 활용하여 올해 2024년 11월 10일부터 16일까지 기도주간에 함께 참여할 계획을 세워 보십시오. 개별적으로 참여하시거나 소규모 그룹을 구성하여 매일 짧은 헌신 기도를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주간의 활동은 6일 간의 일일 헌신 기도와, 7일차에 선택적으로 진행되는 공동 찬양 예배로 구성됩니다.

## 주제에 대하여

2024년 세계 기도 주간의 주제는 네 가지 고전적인 요소인 물, 흙, 불, 바람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간 동안 우리는 성경과 일상생활에서 묘사되고 경험되는 자연 요소들의 다양한 측면을 탐구할 것입니다. 이 기도문들은 묵상의 관점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변화를 일으키도록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2024년 세계 기도 주간이 우리가 믿음 안에 부리를 내리게 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의지를 들여 봉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가운데 빛에 의해 인도되기를 희망합니다.

## 이 소책자 사용 방법

### 1일차부터 6일차까지

6일간의 각 내용에는 서문, 성경 읽기, 성경해석 및 적용, 묵상할 점, 그리고 축복 기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시간 여유가 있다면, 하루 안에 진행할 수 있는 창의적인 활동계획도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룹을 이끄시는 경우, 사전에 시간을 내어 내용을 읽고 기도하며 준비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다양한 그룹 구성원에게 특정 부분(예: 성경 읽기, 기도 등)을 읽도록 요청해보세요.

### 7일차

일부 YWCA/YMCA는 공동 예배로 주간을 마무리합니다. 이에 각자의 지역에서 자체적인 예배를 계획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2025년 성경 읽기 계획

이 소책자의 마지막 부분에는 2025년을 위한 일일 성경 읽기 계획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연중 성경 읽기에 도움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세계 기도 주간을 앞두고, 혹은 기도 주간을 보내는 동안 여러분의 계획, 간증, 개인적 또는 모임의 생각과 경험을 해시태그 #WWOP24를 사용하여 게시해 주십시오.

앤스 크리스찬 커크  
수석 편집자

1일차

# 믿음으로 폭풍을 뚫고 나아가기

사라 즈본니코바, 체코 공화국 YMCA

## 서문

우리는 YMCA와 YWCA 활동의 일원으로서, 혼란스럽고 예측할 수 없는 세상에서 희망의 등불이 되라는 부름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우리의 연합된 믿음은 다른 이들에게 힘의 원천이 될 수 있으며, 그들이 어려움 속에서 혼자가 아님을 상기시켜 줄 수 있습니다. 오늘날의 세계는 경제적 불균형, 사회적 불의, 환경 위기와 같은 수많은 도전에 직면해 있으며, 이러한 문제들은 마치 갈릴리 바다의 폭풍처럼 압도적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도전은 또한 변화를 위한 기회이기도 하며, 공동체가 믿음과 행동으로 함께 모여 그리스도의 손과 발이 되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에서 유래한 여섯 가지 기본 진리에 대해 묵상해보는 자리로 초대받았습니다.

이 진리는 우리에게 위안과 확신을 제공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며, 모든 것 위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질서와 목적을 부여하십니다.

폭풍은 우리의 삶의 여정에서 불가피한 부분입니다.

그리스도는 항상 우리의 배에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은 필수적인 것입니다.

이러한 진리를 더 깊이 탐구하면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으며, 우리를 깊이 돌보신다는 것을 알고 새롭게 힘과 평화를 찾기를 바랍니다.

## 성경본문

### 창세기 1장 1-10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물 위에 움직이고 계셨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빛이 생겨라” 하시니, 빛이 생겼다.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셔서, 빛을 낮이라고 하시고, 어둠을 밤이라고 하셨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하루가 지났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물 한가운데 창공이 생겨, 물과 물 사이가 갈라져라” 하셨다. 하나님이 이처럼 창공을 만드시고서, 물을 창공 아래에 있는 물과 창공 위에 있는 물로 나누시니, 그대로 되었다. 하나님이 창공을 하늘이라고 하셨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튿날이 지났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늘 아래에 있는 물은 한 곳으로 모이고, 물은 드러나거라” 하시니, 그대로 되었다. 하나님이 물을 땅이라고 하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고 하셨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 마가복음 4장 35-41절

그 날 저녁이 되었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바다 저쪽으로 건너가자.” 그래서 그들은 무리를 남겨 두고,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갔는데, 다른 배들도 함께 따라갔다. 그런데 거센 바람이 일어나서, 파도가 배 안으로 덮쳐 들어오므로, 물이 배에 벌써 가득 찼다.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다. 제자들이 예수를 깨우며 말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도, 아무렇지도 않으십니까?” 예수께서 일어나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더러 “고요하고, 잠잠하여라” 하고 말씀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고요해졌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왜들 무서워하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그들은 큰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서로 말하였다. “이분이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까지도 그에게 복종하는가?”

## 성경해석 및 적용

오늘 우리가 읽는 구절을 묵상하다보면, 인생의 수많은 도전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하는 여섯 가지 핵심 진리가 드러납니다:

### 1 | 하나님은 전능하시며 모든 것 위에 계십니다

창세기 1:1은 하늘과 땅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의 전능한 본성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구절은 하나님이 모든 창조물 위에 계시는 최상의 존재임을 강조합니다. 창조자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한 본성은 놀라운 정확성과 숨막히는 복잡성, 그리고 정교한 세밀함 속에서 분명히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비할 데 없이 막강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서 가장 혼란스럽고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생명과 질서, 희망을 가져오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한 힘은 단지 멀리 있는 힘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적인 경험 속에서 생생하게 실재하며, 우리의 이해를 초월하는 지원을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통제를 넘어서는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 2 | 하나님은 질서와 목적을 부여하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혼돈 속에서 질서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빛과 어둠, 육지와 바다를 구별하시고 모든 것에 특정한 목적을 부여하셨습니다. 성경의 첫 구절, 창세기 1:1에서는 하나님의 창조물과의 관계에 대한 깊은 열망과 구원 계획에 대한 우주적 서사를 위한 무대가 준비됩니다. 이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창조와 신성한 의도 속에서 의미와 목적을 찾음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신성한 질서는 우리의 삶에도 반영되며, 우리가 하나님의 설계에 맞추어 살 때 우리는 평화와 성취감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창조 서사는 하나님이 창조자일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어둠 속에 빛을 가져오고 무질서 속에 질서를 세우기 위해 일하고 계시는 유지자(Sustainer)라는 것을 확인시켜줍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의 질서에서 벗어나면 그것이 개인적인 삶, 관계이든지, 또는 공동체에서든 시간에 혼돈이 발생합니다. 창세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창조적 작업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위대한 설계 속에서 의미와 목적을 지니고 있음을 일깨워줍니다. 우리는 우연의 산물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정교하게 엮여져 있습니다. 이 현실을 받아들임으로써, 우리는 하는 모든 일에 있어 하나님의 지혜와 인도를 구하면서 목적을 가지고 살 것을 요청받고 있습니다.

## 3 | 폭풍의 불가피성

마가복음 4:35-41에서 예수님이 폭풍을 잠재우시는 이야기는 폭풍이 모든 사람의 삶의 일부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누구도 자신에게 닥치는 시험과 고난에 대한 면역이 없습니다. 이러한 폭풍은 종종 예기치 않게 찾아와 우리의 믿음과 회복력을 시험합니다. 예수님의 곁에 있던 제자들조차도 폭풍을 면할 수 없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이 도전이 없는 삶을 의미하지 않음을 가르쳐 줍니다. 오히려 이러한 도전 속에서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도록 격려받습니다. 폭풍은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지만, 또한 하나님에 대한 더 깊은 신뢰와 성장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 4 | 우리 배에 함께하시는 그리스도

마가복음의 이야기에서 가장 위안이 되는 부분 중 하나는 폭풍이 휘몰아치는 상황에서도 제자들과 함께 배에 계신 예수님의 존재입니다. 비록 예수님이 잠들어 계셨지만, 그분은 거기 계셨고, 그의 존재는 모든 차이를 만들어 냈습니다. 이는 우리가 그를 볼 수 없거나 느끼지 못할 때에도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하신다는 진리를 상징합니다. 그리스도의 존재는 우리의 인식에 의존하지 않으며, 우리가 믿음으로 신뢰할 수 있는 지속적인 현실입니다. 공황, 의심, 두려움의 순간에 우리는 그리스도가 함께하신다는 확신 속에서 안식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존재는 변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평화와 고요함을 가져옵니다.

## 5 |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 기도의 힘

제자들이 예수님께 외친 “선생님, 우리가 죽어가고 있는데 당신은 아랑곳하지 않으십니까?”는 우리의 기도가 두려움과 절망에서 비롯되었을 때조차도 하나님의 마음에 닿는다는 것을 뚜렷하게 보여주는 예시입니다. 예수님이 즉각적인 응답으로 폭풍을 잠재우신 것은 그가 우리의 외침을 듣고 우리의 간청에 감동받으며, 정말로 우리를 걱정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기도는 그리스도의 존재를 깨닫게 하고 우리의 상황에 하나님의 개입을 가져오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되고, 하나님에 대한 의존을 표현하며, 우리의 삶에 영적인 힘을 초대합니다. 폭풍 가운데에서도 우리의 기도는 우리가 간절히 필요로 하는 평화와 구원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 6 | 믿음의 필요성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는 어려운 시기에 믿음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믿음은 단순한 신념 체계가 아니라, 인생의 파도가 우리를 압도하려 할 때 우리를 지탱해주는 하나님에 대한 적극적인 신뢰입니다. 믿음은 마치 근육처럼, 기도, 성경 읽기, 예배와 같은 일상적인 실천을 통해 훈련되고 강화되어야 하며, 그래야 폭풍이 올 때 굳건히 설 수 있습니다. 제자들의 경험은 믿음이 모든 답을 알고 있다거나 두려움에서 자유로운 상태가 아님을 가르쳐 줍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지 이해하지 못할 때조차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능력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결국, 믿음은 하나님의 사랑과 주권의 현실에 우리를 붙들어주며 용기와 희망을 가지고 인생의 폭풍을 헤쳐 나갈 수 있게 합니다.

## 묵상 해볼 점

- 현재 당신이 직면한 삶의 폭풍은 무엇입니까? 또는 당신의 공동체에서 일어나고 있는 폭풍은 무엇인가요?
- 우리가 운동 연합 혹은 공동체로서, 삶의 고난에 압도된 사람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요?
- 혼란스러운 시기에 하나님의 임재, 사랑, 그리고 능력을 신뢰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 축복기도

주 하나님, 사랑과 자비, 그리고 끝없는 돌봄으로 충만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당신은 모든 것의 창조주이시며, 우리는 당신의 위대하심을 경외합니다. 특별히 어려운 폭풍 속에서 당신의 흔들림 없는 임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평화를 주시옵소서. 우리가 길을 볼 수 없을 때에도 당신의 능력과 사랑을 신뢰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하셔서, 당신이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게 하소서.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희망과 위로의 원천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서 당신의 사랑과 은혜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소서.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며, 모든 폭풍 속에서도 우리가 안전과 평화로 인도될 것을 확신하게 하소서. 전능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활동계획

### “등대가 되라” 격려의 메모

이 활동의 목적은 어려움의 폭풍을 지나고 있는 누군가에게 개인적인 격려의 메모를 작성하여 전달함으로써 빛을 제공하는 등대가 되는 것입니다. 다음 단계를 통해 활동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1 | 도움이 필요한 사람 식별하기

당신의 공동체 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십시오. 이들은 개인적인 고난, 건강 문제, 또는 제도적 불의로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단순히 따뜻한 말 한마디가 필요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친구, 이웃, 동료 등 격려가 필요한 사람들을 떠올려보십시오.

## 2 | 개인의 상황에 맞춘 메모 작성하기

짧지만 진심 어린 격려의 메모를 작성하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각 메모에는 상대방을 위한 긍정적이고 고무적인 메시지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간단한 말일지라도 따뜻한 지지의 말은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 3 | 메모 전달하기

이 메모들을 직접 건네거나, 누군가의 책상 위에 올려두거나, 우편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뜻밖의 친절함 메모를 받는 놀라움은 그 사람에게 희망과 위안을 줄 수 있으며, 그들이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상기시켜 줄 것입니다.

이 간단한 제스처는 누군가의 하루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며, 그들이 소중한 존재임을 느끼게 하고, 어둠 속에서도 항상 빛이 있음을 일깨워 줄 수 있습니다.

## 2일차

# 믿음으로 가뭄을 지나가기

조슈아 해스팅스, 잉글랜드 및 웨일스 YMCA

## 서문

우리가 충만하고 보람찬 삶을 살기 위해 필요한 필수 요소는 무엇일까요?

어떤 이들은 친구, 가족,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냄으로써 충만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학업을 이어가거나 성공적인 경력을 쌓는 것이 보람을 주는 경우도 있으며, 새로운 곳을 여행하거나 자연의 경이로움을 탐험하는 것, 혹은 자원봉사와 봉사 활동에 귀한 시간을 쏟는 것도 그럴 수 있습니다. 각자 삶을 채우는 고유한 방식이 있지만, 충만한 삶을 위해서는 몇 가지 보편적인 필수 요소도 존재합니다.

세계 인권 선언은 모든 사람을 위한 공통적인 성취 기준을 제시합니다. 이 권리의 중심에는 평등, 자유, 그리고 정의가 있으며, 이는 평화롭고 선한 사랑의 삶을 구성하는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마치 물이 모든 생명이 번성하는 데 필수적인 것처럼, 평등, 자유, 그리고 정의도 마찬가지로 중요합니다.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불평등, 차별, 그리고 다양한 형태의 인종차별은 이러한 요소들이 점점 희미해져 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 세계 상위 10%의 부유한 사람들이 전 세계 부의 75% 이상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BCTI).
- 63%의 청소년들이 학교, 지역 사회, 또는 직장에서 차별을 흔히 경험한다고 응답했습니다. (유니세프)
- 3분의 1 이상의 국가에서, 최소 5%의 젊은 여성들이 어린 시절 성폭력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보고되었습니다. (유니세프)

사회에서 소외되고 취약한 그룹들이 겪는 지속적인 불의는 존엄성의 가뭄을 초래합니다. 이 가뭄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믿음과 함께 차별을 해체하고 억압을 타파하며 정의로운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을까요?

## 성경본문

### 사도행전 8장 26-40절

그런데 주님의 천사가 빌립에게 말하였다. “일어나서 남쪽으로 나아가서,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 가는 길로 가거라. 그 길은 광야 길이다.” 빌립은 일어나서 가다가, 마침 에티오피아 사람 하나를 만났다. 그는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고관으로, 그 여왕의 모든 재정을 관리하는 내시였다. 그는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 길에 마차에 앉아서 예언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었다. 성령이 빌립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마차에 바짝 다가서거라.” 빌립이 달려가서, 그 사람이 예언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지금 읽으시는 것을 이해하십니까?” 하고 물었다. 그가 대답하기를 “나를 지도하여 주는 사람이 없으니, 내가 어떻게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올라와서 자기 곁에 앉기를 빌립에게 청하였다. 그가 읽던 성경 구절은 이것이었다.

“양이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것과 같이,  
새끼 양이 털 깎는 사람 앞에서 잠잠한 것과 같이,  
그는 입을 열지 않았다.  
그는 굴욕을 당하면서, 공평한 재판을 박탈당하였다.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겼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이야기하랴?”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였다. “예언자가 여기서 말한 것은 누구를 두고 한 말입니까? 자기를 두고 한 말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두고 한 말입니까?” 빌립은 입을 열어, 이 성경 말씀에서부터 시작 하여, 예수에 관한 기쁜 소식을 전하였다. 그들이 길을 가다가, 물이 있는 곳에 이르니, 내시가 말하였다. “보십시오. 여기에 물이 있습니다. 내가 세례를 받는 데에, 무슨 거리낌이 되는 것이라도 있습니까?” 빌립은 마차를 세우게 하고, 내시와 함께 물로 내려가서, 그에게 세례를 주었다. 그들이 물에서 올라오니, 주님의 영이 빌립을 데리고 갔다. 그래서 내시는 그를 더 이상 볼 수 없었지만, 기쁨에 차서 가던 길을 갔다. 그 뒤에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났다. 그는 돌아다니면서 여러 성에 복음을 전하다가, 마침내 가이사랴에 이르렀다.

### 아모스 5장 24절

너희는, 다만 공의가 물처럼 흐르게 하고, 정의가 마르지 않는 강처럼 흐르게 하여라.

### 요한복음 4장 7-14절

한 사마리아 여자가 물을 길으러 나왔다.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마실 물을 좀 달라고 말씀하셨다. 제자들은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가서, 그 자리에 없었다.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은 유대 사람인데,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유대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과 상종하지 않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대답하셨다.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또 너에게 물을 달라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도리어 네가 그에게 청하였을 것이고, 그는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여자가 말하였다. “선생님, 선생님에게는 두레박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선생님은 어디에서 생수를 구하신다는 말입니까? 선생님이 우리 조상 야곱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라는 말입니까? 그는 우리에게 이 우물을 주었고, 그와 그 자녀들과 그 가축까지 다 이 우물의 물을 마셨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시 목마를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 성경해석 및 적용

히브리 전통 안에서, 아모스 선지자는 사회의 불의를 직접적으로 언급했습니다. 아모스 시대에는 가난한 자들에 대한 광범위한 학대와 선을 행하려는 사람들에 대한 경멸이 만연했습니다. 이들은 존엄성을 잃었으며, 그들의 부당한 대우는 하나님이 명하신 의롭고 공정하게 다스리라는 명령에 어긋나는 것이었습니다.

이 존엄성의 가뭄에 대응하여, 아모스는 “정의를 물처럼 흐르고, 공의가 마르지 않는 강물처럼 흐를 지어다” (아모스 5:24)라고 외칩니다. 이는 압도적이고 지속적인 움직임을 연상케 합니다. 큰 양동이 에 담긴 물이 땅에 쏟아져 퍼져 나가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아모스의 예언은 정의와 공의가 사회에 넘쳐 흐르기를 촉구하며, 우리도 불의한 상황을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갈급한 사람들에게 선함이 퍼지는 것을 가로막는 것이 무엇인지 성찰하도록 초대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정의가 어떻게 펼쳐질 수 있는지 배울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사마리아 여인이라 불리는 사람과의 만남에서 예수님은 이를 보여주십니다. 이 이야기는 역사적으로 여성을 소외시키고 사마리아 사람들을 차별하던 시대의 문화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끊임없는 존엄성의 가뭄 속에서 평등, 자유, 정의에 대한 갈증을 겪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 남성으로서 당시의 문화적, 성적 규범을 넘어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며 친절하게 물을 제공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건네신 물은 단순한 물이 아니라, 평등, 자유, 정의에 대한 그녀의 갈증을 해소하는 하늘의 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물을 “생수”라 부르며 영원한 생명으로 솟아오른다고 하셨습니다. 이 생명을 사마리아 여인의 불의한 처지와 대비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생수는 평등, 자유, 정의로 이루어진 삶을 상징하며, 하나님의 정의는 인간성을 만족시키고 회복하며 존엄성을 되찾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 생수가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차별받던 사람에게 처음으로 주어졌다는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오늘날 비슷한 존엄성의 가뭄을 겪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의 맛을 찾을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우리는 또 다른 소외된 인물을 만납니다. 에티오피아 내시로 묘사된 이 사람은 외국인이며, 신체적 특징 때문에 초기 기독교 교회에서 특정 종교적 관습에 참여하는 것이 금지되었습니다. 에티오피아 내시는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러 갔다가 이 차별적인 법을 준수하는 기관들에 의해 평등, 자유, 정의의 권리를 박탈당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집사 빌립은 예루살렘을 떠나 향량한 길을 따라가는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의 급진적인 포용의 예를 따라 빌립은 내시에게 다가가 함께 대화하며, 그를 물로 주는 세례를 통해 기독교 전통 안으로 포함시킵니다. 물로 주는 세례는 예수님과의 관계로 들어가는 것을 상징하며,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로 다스려지는 삶으로 들어감을 의미합니다.

이 성경 속 예시에서 보듯이, 모든 인류가 번영하는 데 필수적인 물은 또한 자유롭고 평등하게 주어지는 급진적인 포용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정의와 공의의 신선한 맛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YMCA와 YWCA를 통해 사회에서 존엄성의 가뭄을 해소하려는 우리의 노력을 통해 이 끊임없이 흐르는 의와 정의의 근원이 하늘로부터 내려오고, 땅 위에 솟아올라 정의로운 세상을 위해 생명의 물을 공급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1 내시(宦官)는 역사적으로 거세된 남성을 의미하며, 종종 왕실이나 종교적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이 용어는 고대 사회의 관습을 반영하지만, 오늘날의 성별과 정체성에 대한 이해는 더 다양하고 유동적이라는 점을 인지합니다. 이 표현은 현대의 성별 논의를 존중하며 역사적 맥락에서 사용되었습니다.

## 묵상 해 볼 점

- 당신이 누리는 자유 중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인가요? 그 자유가 제한된다면 어떤 감정을 느끼고, 무엇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을 가장 아쉬워할까요?
- 사마리아 여인과 에티오피아의 환관은 그 당시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들로 여겨졌습니다. 현재 당신의 주변에서 차별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누구이며, 그들의 권리는 당신의 권리와 어떻게 다를까요?
- 모든 인류를 공정하고 평등하게 대하는 정의로운 세상을 상상할 때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나요? 그 정의가 현실이 되는 예들을 당신의 주변에서 찾아 기록해봅시다.

## 축복 기도

소외된 이들과 사회의 주변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정의가 흘러넘치고, 억압받는 이들이 외치는 환경과 제도가 변화하길 기도합니다. 나이, 성별, 인종, 종교, 성적 지향 등 어떤 차별 요인에 관계없이 모두가 공정하고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 단결하게 하소서. 생명의 물을 부어 주셔서 존엄성의 가뭄을 채우시고, 모든 인류가 평등을 존중하며 공정함이 흐르기를 기도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셨던 것과 같은 방식으로 환영하고 포용하게 하시며, 에티오피아의 환관에게 하셨던 것과 같은 방식으로 경청하고 배제하지 않게 하소서. 모두가 필요로 하고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며, 정의로운 세상을 향해 신앙으로 나아가고 우리가 섬기는 모든 사람을 신성하게 존중하게 하소서. 아멘.

## 활동계획

### 생명의 물

이 활동의 목적은 물과 스펀지를 개인 및 공동체 생활 속의 돌봄과 자원 배분에 비유하여 자원, 연민, 자기 돌봄의 중요성에 대한 성찰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준비물:** 작은 양동이 두 개(하나는 물로 채우고 하나는 비어 있음), 스펀지

### 1 | 소개

물로 가득 찬 양동이로 시작하고 그룹에게 다음과 같은 성찰 질문을 던집니다:

-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물에 의존하고 있습니까?
- 비유적으로, 물은 무엇을 나타냅니까? (예시: 정확, 상쾌함, 세례, 생명 등)
- 오늘날 사회에서 “우물가의 여자들”은 누구입니까? 즉, 소외되거나 배제되어 번영하는 데 필요한 자원에 접근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 2 | 스펀지 시연

스펀지를 물이 가득 찬 양동이에 넣습니다.

스펀지가 물을 흡수하도록 한 다음, 비어 있는 양동이에 짜냅니다.

그룹에 질문합니다:

- 우리는 어떻게 이 스펀지처럼 자원이나 연민을 흡수하고 나누는 존재가 되도록 부름받고 있습니까?
- 이 행동을 통해 무엇을 깨닫고, 그것이 매일 하는 일과 어떻게 관련이 있습니까?
- 스펀지가 오랫동안 물에 담기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물이 없는 스펀지처럼 “말라있다”고 느낄 때, 자신을 새롭게 하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 선택적 기념품

각 참가자에게 작은 스펀지를 제공하여, 사회에서 “가뭄”을 겪고 있는 이들에게 생명과 존엄성을 가져다주는 자신의 역할을 상기시킵니다.



3일차

## 믿음으로 골짜기를 지나가기

라우라 아빌레스,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해 연합 YMCAs

### 서문

골짜기는 매력적인 기후의 대조가 나타나며, 고도와 지리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낮은 지역에서는 따뜻함과 습기가 우세하고, 높은 지역에서는 서늘하고 건조한 공기가 흐릅니다. 이러한 요소들은 골짜기를 대조의 장소로 만들어 주며, 인간 경험의 이중성을 반영합니다. 즉, 기쁨과 따뜻함의 순간들이 추위와 도전의 시기와 섞여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두 구절은 '골짜기'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지만,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으며, 그 어려움은 홍수의 비바람처럼 다가옵니다. 삶의 골짜기 속에서 안식처를 찾는 것은 구원이나 구조와 같은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힘든 일을 겪을 때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장소를 찾는 것과 같이,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삶의 혹독한 날씨에서 벗어날 수 있는 안식처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함께 삶의 골짜기를 대면하는 방법과 다른 사람들도 자신의 골짜기를 믿음으로 지나갈 수 있도록 격려하는 방법을 배워봅시다.

## 성경본문

### 시편 71편 1-7절

주님, 내가 주님께로 피합니다.  
 보호하여 주시고, 수치를 당하는 일이 없게 해주십시오.  
 주님은 의로우시니, 나를 도우시고, 건져 주십시오.  
 나에게로 귀를 기울이시고,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주님은 나의 반석, 나의 요새이시니,  
 주님은, 내가 어느 때나 찾아가서 숨을 반석이 되어 주시고,  
 나를 구원하는 견고한 요새가 되어 주십시오.  
 나의 하나님, 나를 악한 사람에게서 건져 주시고,  
 나를 잔인한 폭력배의 손에서 건져 주십시오.  
 주님, 주님 밖에는, 나에게 희망이 없습니다.  
 주님, 어려서부터 나는 주님만을 믿어 왔습니다.  
 나는 태어날 때부터 주님을 의지하였습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나올 때에 나를 받아 주신 분도 바로  
 주님이셨기에 내가 늘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는 많은 사람에게 비난의 표적이 되었으나,  
 주님만은 나의 든든한 피난처가 되어 주셨습니다.

### 마태복음 7장 24-27절

그러므로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자기 집을 지은 슬기로운 사람과 같다고 할 것이다.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들이쳤지만 무너지지 않았다.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웠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의 이 말을 듣고도 그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자기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고 할 것이다.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들이치니 무너졌다. 그리고 그 무너짐이 엄청났다.

## 성경해석 및 적용

시편 71편은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반란 이후 인생의 후반기를 보낼 때 쓴 시라고 여겨집니다. 정확한 상황은 알 수 없지만, 이 글의 저자는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께 구원을 간구하고 있는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이 시편은 기도의 형식을 띠고 있지만, 시편 기자가 “당신은 나의 희망입니다,” “나의 신뢰입니다,” “나의 보호자입니다,” “나의 강한 피난처입니다”와 같은 구절을 통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상기하며 희망을 선언하는 것에 가깝습니다.

삶의 골짜기를 지나갈 때 우리는 자신이 누구인지 알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는 강하다,” “나는 용감하다,” “나는 어려운 일을 할 수 있다”와 같은 확언은 단순한 생각 그 이상입니다. 이런 말들은 우리의 상황이 항상 변하지 않더라도 우리의 시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윗은 “당신은 나의 희망입니다,” “나의 신뢰입니다,” “나의 강한 피난처입니다”라고 자신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상기시키며 이러한 확신으로 한단계 더 나아가게 합니다. 그는 “내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이 어떠하셨는지를 회상하며, 하나님께 “내 피난처의 바위”이자 “나를 구원할 강한 요새”가 되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바위의 견고한 기초에 대한 것은 지혜로운 사람이 견고한 땅에 자신의 삶을 세우는 모습으로 묘사되는 신약 성경 마태복음 7장 속 이야기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삶의 폭풍은 반드시 찾아오고, 홍수의 물은 차오르며, 어려움은 겪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고려해야 할 질문은, 우리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을 위해 어떤 삶을 세워가고 있는가입니다. 삶의 가장 혹독한 폭풍을 견뎌낼 수 있는 희망을 선언할 수 있는가? 우리는 피난처를 찾을 수 있는가? 우리가 가진 희망을 타인과 나누고 있는가? 우리 뒤에 올 세대를 위해 강한 기초를 다지고 있는가?

여러분, 만약 시편 71편이 개인이 아닌 공동체를 위한 희망의 선언으로 읽힐 수 있다면 어떨까요? 이럴 경우, 아무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모두가 피난처를 찾고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만약 마태복음 7장이 단순히 나의 집이나 내 삶에 관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공동체와 지구에 관한 것이라면 어떨까요? 우리는 우리 발 아래 땅에 대해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투자하고, 우리 뒤에 오는 이들을 위해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나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확인하고 기억할 수 있도록 초대받는 중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존재가 되기를 바라고 계신지 또한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웃, 우리나라, 그리고 전 세계를 위해 우리가 투자해야 할 미래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 축복기도

### “희망의 샘”

#### (스페인어 기도의 번역)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생명과 빛의 주님,  
감사와 경배의 마음으로 당신 앞에 무릎 꿇습니다.  
우리의 눈을 당신께 들어 올립니다. 오 하나님, 당신은 우리의 피난처입니다.

황량한 순간과 사막 같은 공간에서,  
당신의 손이 우리를 붙잡고, 우리는 당신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보호받습니다.  
길이 보이지 않을 때, 당신은 길을 만드십니다.  
그리고 북쪽 협곡에서 오는 신선한 물로 우리를 양육하십니다.

당신은 당신의 아들과 딸들에게 생수의 강을 심어주시고  
우리의 고통 속에서 정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구속받은 자들은 사막의 길을 자신 있게 걸으며  
영원한 기쁨으로 당신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야생 동물이 으르렁거릴지라도 우리는 해를 입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 아도나이, 당신은 당신의 창조물을 보호하는 분이시고,  
당신은 모든 축복의 고갈되지 않는 원천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구세주여, 낮의 더위와  
밤의 추위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당신의 품에 안아주소서.  
우리는 새로운 노래로, 북과 춤으로 당신을 찬양할 것입니다,  
당신만이 최고의 찬양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거룩하시고, 거룩하시고, 거룩하신 주님,  
 우리의 사막과 마음의 아픔에서 우리를 구원해주소서,  
 강력한 구세주, 예수여, 우리는 당신을 믿습니다,  
 우리는 당신을 의지하며, 우리의 희망은 당신 안에 있습니다.  
 달콤하고 변치 않는 이름의 예수님을 통해 기도합니다.  
 아멘.

## 활동계획

### 예술과 스토리텔링

이 활동은 예술과 스토리텔링을 통해 인간 경험의 대조되는 지점을 탐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준비물:** 종이 또는 캔버스, 물감 또는 마커, 일기장

#### 1 | 소개

계곡과 계곡의 기후적 대조에 대한 논의로 시작합니다. 어떤 계곡은 따뜻하고 생명으로 가득 차 있는 반면, 다른 계곡은 차갑고 황량하다는 점을 설명합니다. 이를 개인의 기쁨과 도전 경험에 연결합니다. 참가자들이 자신의 삶이나 공동체에서 느낀 “따뜻한” 순간과 “차가운” 순간을 모두 반영하도록 격려합니다.

#### 2 | 예술 창작

- 그룹을 두 개로 나눕니다:  
한 그룹은 “따뜻함과 기쁨”에 초점을 맞추고, 다른 그룹은 “추위와 도전”에 초점을 맞춥니다.
- 각 그룹은 제공된 물감, 마커 또는 기타 재료를 사용하여 자신의 주제를 표현하는 작품을 만듭니다.

#### 3 | 성찰적 글쓰기와 나눔

작품을 완성한 후, 참가자들은 자신의 창작 주제를 반영하는 짧은 시, 기도 또는 개인 이야기를 씁니다. 그들이 진솔하고 개인적인 표현을 할 수 있도록 격려합니다. 그 후, 그룹과 함께 자신의 성찰을 나눕니다.

#### 4 | 토론

따뜻한 순간과 차가운 순간이 우리 공동체와 지구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에 대한 그룹 토론으로 마무리합니다. 참가자들에게 어려운 시기에 서로를 지원하고, 다음 세대를 위한 힘의 원천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보도록 합니다. 질문합니다: 우리는 개인으로서 그리고 공동체로서 어떻게 다른 이들에게 “피난처의 바위”가 될 수 있을까요?

이 활동은 인간 경험의 이중성에 대해 반성하고, 창의성을 발휘하며,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 보너스

이야기 나누기 예술을 더 탐구하고 싶다면, [세계 YWCA의 스토리텔링 가이드: 행동주의 이야기](#) 연기를 방문해 보세요.



4일차

## 믿음으로 들판을 지나가기

솔로무지 마부자, 남아프리카 YMCA

### 서문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포함하여 우주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성경의 한 히브리 이야기에서는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우리”라는 복수의 형상과 모습대로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창조물을 돌볼 책임을 주셨다고 전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인간이 지구에서 평등하게 공존하며, 이 땅을 돌보길 의도하셨습니다. 성경의 창조 이야기를 오늘날의 세계적 맥락에서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나아가야 할 메시지가 무엇인지 함께 찾아봅시다.

### 성경본문

#### 창세기 3장 17-19절

남자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네가 아내의 말을 듣고서,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의 열매를 먹었으니, 이제 땅이 너 때문에 저주를 받을 것이다. 너는 죽는 날까지 수고를 하여야만 땅에서 나는 것을 먹을 수 있을 것이다. 땅은 너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너는 들에서 자라는 푸성귀를 먹을 것이다. 너는 흙에서 나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때까지 너는 얼굴에 땀을 흘려야 낱알을 먹을 수 있을 것이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 고린도전서 12장 14절

몸은 하나의 지체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지체로 되어 있습니다.

## 성경해석 및 적용

가부장적인 시각으로 성경을 읽는 것은 세계 YMCA-YWCA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해방신학의 해석학적 도구는 페미니스트와 여성주의 독자들이 이 본문을 다시 읽고, 처음에는 여성들에게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는 구절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 메시지의 핵심은 우리가 기만적이거나 억압적인 목소리 대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땅을 돌보고 가꾸는 것이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본래 의도였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땀 흘리며 가시덤불 속에서 수고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열심히 일하는 것을 가치 있게 여기고, 그것을 하나님의 별로 보는 대신, 진정한 보람과 좋은 삶을 위한 중요한 요소로 받아들이라는 초대를 받습니다. 이 새로운 해석은 처벌에 초점을 맞춘 전통적인 해석에서 벗어나, 인류가 땅을 돌보는 청지기로서 책임을 맡았다는 비전을 갖도록 촉진합니다.

이 해석은 성경의 본래 메시지를 왜곡하는 억압적인 시스템에 도전하며, 인간의 노동과 창조물을 모두 존중하고 소중히 여기는 세계를 지향합니다. 우리가 지속 가능한 행성을 위해 옳은 일을 할 때, 지구를 소중히 돌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구절은 인류가 하나님의 창조물로서 서로 의존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모든 사람의 목소리는 그들이 특권이나 권력을 가지고 있든 없든 상관없이 귀 기울여져야 하고, 소중히 여겨져야 합니다.

구조적 죄는 창조주의 뜻에 반하는 목소리와 같습니다. 불평등, 빈곤, 실업은 죄의 결과입니다. 여성들은 남성들과 동일한 임금을 받지 못하는 세계를 경험해 왔습니다. 미성년 아동들이 가난을 악용하는 잔혹한 고용주에게 착취당하고, 세계 곳곳의 젊은이들은 빈곤과 싸우고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바라시는 평등한 세상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믿음으로 이 땅을 걷는 것은 우리가 모두 평등하게 대우받는 정의로운 세상에 대한 헌신을 요구합니다.

제1세계와 제3세계 간의 분열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교육은 부자들의 특권이 되어서는 안 되며,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에게 접근할 수 없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종교는 인종과 배경이 다른 사람들을 나누고 차별해서는 안 되며, 오히려 통합과 포용을 촉진해야 합니다.

통합된 몸이라는 개념은 언제나 하나님의 창조물로서 우리의 담론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인류는 하나의 집을 가지고 있으며, 우리는 인류의 요람인 지구를 존중해야 합니다. 우리는 흙에서 창조되었으며, 흙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우리의 양식도 땅에서 나옵니다.

## 묵상해 볼 점

- 독이 되는 방향으로 해석될 수 있는 다른 텍스트의 예를 들어보세요. 우리는 어떻게 그것들을 다시 읽을 수 있을까요?
-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일, 즉 여러분의 손으로 하는 일은 무엇인가요?
- 우리 공동체에서 무시되어온 목소리는 누구의 것인가요?
- 다른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변화시켜야 할까요?
- 우리 공동체나 YMCA-YWCA 운동에서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과 어떻게 소통할 수 있을까요?

## 축복기도

우주의 창조주여, 이 땅에서 올바른 마음가짐으로 걷는 법을 가르쳐 주소서. 종교, 인종, 성적 지향, 신념, 계급에 따라 다른 사람을 차별하지 않도록 가르쳐 주시고, 우리 모두가 공정한 세상을 만들 수 있도록 힘을 주소서. 우리가 모두 하나님이 선물하신 이 우주 속 지구의 청지기로서 살게 하여 주소서. 우리가 무시했던 목소리들이 세상에 들리게 하여 주시고, 서로를 사랑할 수 있도록 새로운 숨결로 우리를 채워 주소서. 모든 사람들이 의미 있는 일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여 주소서.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삼위일체 하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활동계획 1

### 연결의 원

이 활동의 목적은 참가자들이 자신, 서로, 그리고 신성한 존재와의 관계에 대해 깊이 성찰할 수 있게 하고, 그들의 공동체 의식과 연대 책임감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준비물:** 큰 원형의 실이나 끈 (또는 원을 만들 수 있는 재료), 인덱스 카드, 마커 또는 펜

### 1 | 원의 생성

큰 원형의 실이나 끈을 바닥에 놓아, 통합과 상호 연결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이는 그룹 내 모든 사람이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나타냅니다.

### 2 | 성찰 질문

참가자들에게 인덱스 카드와 마커를 나눠주고 다음 질문들에 대해 성찰하고 자신의 생각을 적도록 합니다:

- 당신의 공동체에서 연결이란 무엇을 의미하나요?
- 당신은 삶 속에서 주님의 힘이나 지지를 어떻게 경험하나요?
- 어떻게 우리가 서로와 더 깊은 관계를 형성할 수 있을까요?
- 우리가 협력하여 세상에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낼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 공동체에서 평등과 정의를 촉진하기 위해 함께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 3 | 통찰 나눔

모든 참가자가 답변을 작성한 후, 그들의 생각을 공유하도록 초대합니다. 응답을 소리 내어 읽거나 요약해서 나눌 수 있습니다.

### 4 | 연결 형성

공유가 끝난 후, 참가자들은 자신의 인덱스 카드를 원에 실이나 끈으로 묶거나 원 안에 놓아 연결합니다. 이 시각적 표현은 각자의 통찰이 더 큰 공동체에 기여함을 상징합니다.

### 5 | 그룹 토론

개인의 통찰이 어떻게 공동체를 형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지에 대한 토론으로 마무리합니다. 참가자들이 제시된 질문들에 대해 어떤 행동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하도록 격려합니다.

#### 선택적 기념품

참가자들은 작은 실이나 끈으로 팔찌를 만들어 기념품으로 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 이는 연결을 유지하고 포용을 촉진하는 데 대한 헌신을 상징합니다.

## 활동계획2

### 십자가를 향한 질문들

기도 그룹을 위해 십자가를 준비하거나 만들어보세요. 그리고 다음 질문들에 대해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 당신의 공동체에서 십자가는 무엇을 상징하나요?
- 신성한 힘과는 (수직적으로)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하나요?
- 서로와는 (수평적으로)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하나요?
- 함께, 우리는 이 세상을 어떻게 더 나은 곳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 평등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5일차

## 믿음으로 불 속을 지나가기

던컨 차우드허리, 세계 YMCA

### 서문

불은 인류가 시간의 시작부터 익숙하게 접해 온 원초적인 힘으로, 종종 파괴의 상징으로 여겨집니다. 선사 시대에 인간은 번개로 인해 일어난 산불이 숲 전체를 재로 만들며 일으키는 불을 경외와 두려움의 대상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며, 인간은 불의 힘을 자신의 유익을 위해 활용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불은 고기를 안전하게 먹을 수 있도록 했고, 원시 금속을 유용한 합금으로 바꾸며 생존과 발전을 위한 도구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불은 파괴뿐만 아니라 정화를 상징하며,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구약과 신약에서도 불은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 보호, 그리고 정화를 상징하는 강력한 은유로 등장합니다. 불은 단순히 파괴의 힘이 아니라, 시험하고 정화하는 수단입니다. 인생은 우리에게 비유적인 불과 같은 어려운 상황을 던져주며, 그로 인해 우리의 힘과 믿음이 시험받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강한 믿음과 하나님의 가르침에 따라 살아간다면, 우리는 이 시험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불은 우리가 삶에서 마주하는 정화의 도전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상징하는 힘이 됩니다.

## 성경본문

### 다니엘서 3장 19-30절

그러자 느부갓네살 왕은 잔뜩 화가 나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보고 얼굴빛이 달라져, 화덕을 보통 때보다 일곱 배나 더 뜨겁게 하라고 명령하였다. 그리고 그의 군대에서 힘센 군인 몇 사람에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묶어서 불타는 화덕 속에 던져 넣으라고 명령하였다. 그러자 사람들은 그들을, 바지와 속옷 등 옷을 입고 관을 쓴 채로 묶어서, 불타는 화덕 속에 던졌다. 왕의 명령이 그만큼 급하였다. 화덕은 매우 뜨거웠으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든 사람들도 그 불꽃에 타서 죽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세 사람은 묶인 채로, 맹렬히 타는 화덕 속으로 떨어졌다.

그 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서 급히 일어나, 모사들에게 물었다. “우리가 묶어서 화덕 불 속에 던진 사람은, 셋이 아니더냐?”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였다. “그러합니다, 임금님.” 왕이 말을 이었다. “보아라, 내가 보기에는 네 사람이다. 모두 결박이 풀린 채로 화덕 안에서 걷고 있고, 그들에게 아무런 상처도 없다! 더욱이 넷째 사람의 모습은 신의 아들과 같다!” 느부갓네살 왕이 활활 타는 화덕 어귀로 가까이 가서 소리쳐 말하였다.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이리로 나오너라!” 그러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왔다. 지방장관들과 대신들과 총독들과 왕의 측근들이 모여서 이 사람들을 보니, 그 몸이 불에 상하지 않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않고, 바지 색깔도 변하지 않고, 그들에게서 불에 탄 냄새도 나지 않았다. 느부갓네살 왕이 말하였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돌보신 하나님을 찬송하여라. 그는 천사를 보내서 그의 종들을 구하셨다. 이 종들은 저희의 하나님을 의뢰하여, 저희의 몸을 바치면서까지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저희의 하나님 말고는, 다른 어떤 신도 절하여 섬기지 않았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린다. 민족과 언어가 다른 모든 백성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두고서 경솔히 말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이 명령을 어겼다가는 그 몸이 조각날 것이며, 집이 쓰레기 더미가 될 것이다. 이와 같이 자기를 믿는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신은 다시 없을 것이다.” 왕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빌론 지방에서 번영을 누리면서 살게 하였다.

### 히브리서 12장 28-29절

그러므로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으니, 감사를 드립시다. 그리하여,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그를 섬깁시다. 우리 하나님은 태워 없애는 불이십니다.

## 성경해석 및 적용

다니엘서에서 우리는 불의 이중적인 상징성을 강력하게 보여주는 이야기를 만나게 됩니다.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은 자신의 황금 신상을 숭배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신실한 세 명의 이스라엘인, 사드락, 메삭, 아벳네고스는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경배하겠다는 신념을 가지고 그 명령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분노한 느부갓네살은 그들을 보통보다 일곱 배 더 뜨겁게 달군 화덕에 던져 넣으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들이 화덕에 들어갔을 때 불은 그들을 삼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아무런 해를 입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현현이라고 믿은 네 번째 인물이 그들과 함께 불 속에 나타나 그들을 보호해 주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신앙을 굳건히 지키는 자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상기시켜 줍니다. 이는 이사야서의 예언을 떠오르게 합니다: '네가 불 속을 지나갈 때에도 타지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리라' (이사야 43:2). 사드락, 메삭, 아벳네고는 외국 땅에서 포로로서 폭군의 억압 아래 있었지만, 그들은 끝까지 하나님께 충실하며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들의 시련의 순간에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의 일상에서도 우리는 종종 비유적인 불 속에 서게 됩니다. 박해, 차별, 착취, 인권 침해 등과 같은 시험을 겪게 되며, 특히 여성과 아이들이 이러한 불의에 취약합니다. 많은 나라에서 소외된 공동체와 소수 민족들은 심각한 억압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순간에 우리의 신앙은 시험을 받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네고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사회의 압박 속에서도 신앙을 굳건히 지키라고 격려합니다. 진리와 정의를 위해 일어서는 것은 갈등을 초래할 수 있지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이러한 도전을 이겨낼 힘을 줍니다.

오늘날의 현대 사회는 새로운 형태의 이상 숭배를 제공합니다. 물질주의, 소비주의, 부패, 권력 남용, 그리고 문화적 지배가 현대판 황금 신상입니다. 느부갓네살이 신하들의 생각과 신념을 통제하려 했듯이, 현대의 독재자들과 억압적인 정권은 반대를 잠재우고 종교적 자유를 억제하려 합니다. 이러한 도전에 맞서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들은 사드락, 메삭, 아벳네고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보호받습니다. 하나님은 소외된 자들과 억압받는 자들과 함께하시며, 그들이 견디고 궁극적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십니다.

다니엘서의 이야기는 이 점을 더욱 강조합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네고의 기적적인 생존을 목격한 느부갓네살은 그들의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을 하는 자는 처벌받을 것이라는 칙령을 내렸습니다. 그의 마음의 변화는 하나님에 대한 굳건한 신앙이 가장 강력한 적들조차도 진리를 인식하게 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정의와 공의를 추구하며 굳건히 서 있을 때, 그 승리는 우리에게만 이로운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진리를 받아들이는 깨달음을 줄 수 있습니다.

신약에서 불이 정화하는 힘으로 강조되는 주제는 더 깊이 다루어집니다. 히브리서에서 저자는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고 흔들리지 않으며, 아무도 그것을 뒤엎을 수 없다고 상기시킵니다. 하나님은 자비롭고 사랑이 많으시지만, 또한 정의롭고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은 종종 불에 비유되며, 이는 불순물을 태워 없애고 가치 없는 모든 것을 삼켜 버립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정화하는 불의 이미지는 우리에게 의로운 삶을 살고,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기준을 높게 유지하라는 부르심을 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한한 자비를 베푸시지만, 동시에 거룩함을 위해 힘쓰라고 요청하십니다. 불이 금속의 불순물을 제거하며 정련하듯, 하나님도 우리를 정제하시며 우리의 품성을 시험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은 것을 제거하십니다. 이러한 시험은 고통스럽지만 성장의 기회가 됩니다. 이로써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의로움을 원하는 정화자로서의 역할도 하신다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이러한 시험 앞에서 우리는 경외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자비에 감사하며, 삶의 모든 측면에서 정의를 지키도록 부름받고 있습니다.

## 결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이야기는 믿음의 보호와 정화의 힘에 대한 강력한 증거입니다. 불은 종종 파괴의 상징으로 여겨지지만, 동시에 정화, 힘, 그리고 신성한 존재를 나타냅니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 은유적인 불을 마주합니다—우리의 결단과 믿음을 시험하는 도전들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가르침에 따름으로써, 우리는 이러한 시험을 극복하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처럼 더욱 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하시며, 믿음과 정의, 의로움의 도전 속에서 우리를 인도하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일깨워 줍니다. 이러한 시험을 통해 우리는 정화되고 하나님의 영원하고 흔들리지 않는 나라에 더 가까워지게 됩니다.

## 묵상해 볼 점

- 소비주의와 물질주의는 현대의 우상 숭배 형태입니다. 이러한 우상이 우리의 믿음에 어떤 방식으로 도전하며, 우리는 어떻게 저항할 수 있을까요?
- 개인적인 시련 중 하나님의 존재를 어떻게 이해하며,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실천은 무엇일까요?
- 우리는 삶의 다양한 고난을 통해 시험을 경험합니다. 이러한 고난을 단순한 고통이 아닌 영적 성장과 도덕적 향상을 위한 기회로 바라보려면 어떻게 관점을 전환해야 할까요?

## 축복기도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에 쏟아주신 무수한 축복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기쁨의 순간들, 특히 시련과 어려움의 시기에 함께하신 주님의 존재에 감사드립니다. 삶의 도전 속에서 주님의 끊임없는 보호와 힘을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뜻에 따라 살며 의의 빛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정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항상 주님의 영원한 사랑과 평화로 우리를 둘러싸 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 활동계획

### 불의 원 (FIRE CIRCLE)

이 활동은 참가자들에게 내면을 들여다보고 해방의 공간을 제공하여, 하나님, 자신, 그리고 공동체와의 관계를 방해하는 우상이나 방해 요소를 식별하고 놓아버릴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활동은 상징적인 불태우기를 통해 개인의 성장, 공동체 지원의 촉진, 그리고 영적 성찰을 장려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준비물:** 인덱스 카드 (참가자들이 쓸 수 있는 작은 종이 조각), 펜, 나무/불, 작은 화로를 만들기 위한 불 붙이는 도구/성냥 (안전 수칙 준수 필수), 대형 양초 (실내에서 사용할 대안, 안전 규정을 준수해야 함).

#### 1. 준비하기

- 참가자들을 화로 주위에 원을 그리며 모이게 합니다.
- 각 참가자에게 펜과 인덱스 카드를 하나씩 나눠줍니다.

#### 2. 성찰하기

- 참가자들에게 몇 분간 생각할 시간을 주고,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 자신, 또는 그들이 섬기는 공동체보다 우선시하는 우상을 적어보라고 합니다. 솔직하고 열린 마음으로 적도록 격려합니다.

#### 3. 나누기

- 몇 명의 자원자를 요청하여 그들이 인덱스 카드에 적은 내용을 나누도록 합니다. 이 나눔은 참가자들 간의 공동체 의식과 지원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4. 상징적인 불태우기

- 각자가 자신의 생각을 공유한 후, 인덱스 카드를 화로에 넣거나 실내의 경우 양초 주위에 두도록 초대합니다. 이 행위는 그들이 인식한 부담과 방해 요소를 놓아주는 것을 상징합니다.

#### 5. 명상하기

- 카드를 불에 넣거나 양초 주위에 놓은 후, 모든 참가자에게 몇 분 동안 불꽃을 바라보도록 초대합니다. 깊은 숨을 쉬고 하나님을 느끼며 그 존재를 불꽃에 비유해 따뜻하고, 변화를 주며, 비추는 것처럼 생각하도록 격려합니다.

#### 6. 마지막 나눔

- 잠시 침묵을 가진 후, 경험에 대한 생각이나 감정을 나누고 싶은 사람이 있는지 물어봅니다. 이는 참가자들이 활동을 처리하고 서로 연결될 수 있는 강력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6일차

## 믿음으로 어둠 속을 지나가기

옌스 크리스티안 커크, YMCA-YWCA 덴마크

### 서문

때때로 우리는 광야를 지나고 있는 스스로를 발견하게 됩니다. 광야는 성경에서의 시내와 네게브 사막과 같이 문자 그대로의 광야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광야는 또한 우리의 목적이나 소속에 대한 의심, 자신에 대한 의심, 서로에 대한 의심, 심지어 존재론적 의심을 포함하는 의심의 장소를 떠도는 것과 같은 은유적일 수도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또한 어둠 속에 있게 됩니다. 어둠은 별이 없는 밤처럼 문자 그대로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광야와 마찬가지로 어둠은 또한 은유적입니다. 외로움, 도전적인 경험, 그리고 불안정한 정신 건강은 모두 어둠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광야와 어둠 속에서 우리는 길잡이가 되어줄 빛과 우리를 일으켜줄 불꽃을 갈망합니다.

오늘의 성경 구절들은 그 빛에 대한 이야기를 전합니다.

## 성경본문

### 출애굽기 13장 17-22절

바로는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냈다. 그러나 그들이 블레셋 사람의 땅을 거쳐서 가는 것이 가장 가까운데도, 하나님은 백성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다. 그것은 하나님이,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바꾸어서 이집트로 되돌아가지나 않을까, 하고 염려하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백성을 홍해로 가는 광야 길로 돌아가게 하셨다. 이스라엘 자손은 대열을 지어 이집트 땅에서 올라왔다. 모세는 요셉의 유골을 가지고 나왔다.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엄숙히 맹세까지 하게 하며 “하나님이 틀림없이 너희를 찾아오실 터이니, 그 때에 너희는 여기에서 나의 유골을 가지고 나가거라” 하고 말하였기 때문이다. 그들은 숙곳을 떠나 광야 끝에 있는 에담에 장막을 쳤다. 주님께 서는, 그들이 밤낮으로 행군할 수 있도록,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앞서 가시며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앞길을 비추어 주셨다.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그 백성 앞을 떠나지 않았다.

### 사도행전 2장 1-4절

오순절이 되어서, 그들은 모두 한 곳에 모여 있었다. 그때에 갑자기 하늘에서 세찬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 있는 온 집안을 가득 채웠다. 그리고 불길이 솟아오를 때 혀바닥처럼 갈라지는 것 같은 혀들이 그들에게 나타나더니, 각 사람 위에 내려앉았다.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성령이 시키시는 대로 각각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였다.

## 성경해석 및 적용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떠날 때, 그들은 대규모 난민공동체였습니다. 오늘날의 많은 난민들과 마찬가지로, 그들은 자신과 자녀 세대의 더 나은 미래를 찾기 위해 탈출했습니다. 그들은 억압을 피해 안전과 평화를 찾을 수 있는 새로운 고향을 탐색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약속의 땅”으로 가는 그들의 직행로는 전쟁, 약탈자, 심지어 잡혀서 이집트로 다시 돌아가는 위협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더 길고 어려운 경로인 광야, 사막, 바다를 통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것이 더 안전한 선택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억압을 피해 난민이 되는 경험은 슬프게도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현재 전 세계에 4,340만 명의 난민이 있다는 사실이 이를 증명하며, 이스라엘 백성이 탈출하여 피난을 간 지역은 1948년 이후로 세계에서 난민과 이주인이 가장 많은 지역 중 하나입니다. 2023년 10월 7일 이후의 시간은 팔레스타인 주민들 사이의 상황을 더욱 강조하고 악화시켰습니다. 이는 우리 모두에게 이재민의 고통이 여전히 긴급하다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난민을 지원하기 위한 정의를 위해 계속 일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특별한 이유는 그들이 난민신분이기 때문이 아니며, 광야를 여행하기 때문도 아닙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도드러지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의 안내자로 행동하시고 결코 그들을 떠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임재가 낮에는 그들의 길을 인도하기 위해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그들에게 빛을 주기 위해 불기둥으로 보였다”라고 전합니다. 그들의 경험을 의미 있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이 낮과 밤, 광야와 어둠 속에서 그들의 안내자로 함께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제공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를 인도하며, 낮과 밤, 광야와 어둠을 지나갈 수 있게 합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도 가능한 일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제자들은 광야에 모여 있지 않았고, 오순절 날에도 어둠 속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난 몇 달은 그들에게 감정의 롤러코스터와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도착하고, 그를 위해 도시로 환호하며 입성하고, 함께 유월절을 축하했지만, 그의 체포와 죽음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슬픔 속에서 그들은 빈 무덤에 대한 소식을 듣고, 그곳에서 그들 가운데서 계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10일 전에는 예수님께서 당신의 임재가 그들과 함께 할 것이라는 약속을 남기시고는 다시 한 번 그들을 떠나셨습니다. 그들이 혼란스럽고 의심이 가득한 기분을 느끼는 것이 충분히 이해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감정들은 광야와 어둠처럼 우리를 압도할 수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성령이 오순절 날 그들에게 내려오면서 각자 위에 불의 혀가 머물렀습니다. 이는 그들 안에서 불이 점화된 것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이 불은 그들의 의심이나 혼란을 지우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동하도록 격려합니다. 불은 그들로 하여금 목소리를 내고, 행동하며, 광야와 어둠 속에서 다른 이들을 이끌 용기를 심어줍니다.

이 두 본문은 삶의 현실을 일깨워 줍니다. 우리는 광야를 건너거나 어둠을 지나야 하는 시간들을 맞이할 것입니다. 어려운 경험으로부터 보호받는 삶을 기대할 수는 없으며, 때로는 신앙의 삶이 감정적 혼란의 시기로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모든 것을 통해 신앙의 삶이 어둠 속에서 혼자가 아니라는 약속과 광야에서의 안내자가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앞에 불의 기둥이 되시고, 우리 마음속에 점화된 불이 될 수 있습니다.

## 묵상해 볼 점

- 당신의 인생에서 광야를 방황하거나 어둠 속을 걷는 기분을 느꼈던 때가 있나요?
- 어둠 속에서 빛을 보는 기분을 아나요?
- 하나님이 당신의 마음을 점화하는 불의 기둥으로 또는 불로 당신과 함께 하신 경험은 어떤 것인가요?
- 지역 YMCA/YWCA 또는 공동체가 어떻게 난민과 함께 일할 수 있을지 생각해 봅시다.
- 지역 YMCA/YWCA 또는 공동체가 정신 건강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희망의 등대가 될 수 있을지 고려해 봅시다.

## 축복기도

난민의 하나님,  
우리가 마음의 광야와 세상의 광야를 지날 때 우리를 인도하소서. 사막과 바다, 협곡을 지나갈 때에 우리를 이끄소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 동료 방랑자들을 돌볼 수 있게 하소서.

약속의 하나님,  
희망의 초원과 평화의 오아시스, 피난처의 언덕으로 인도하소서. 우리의 방향 속에 동행자와 인도자로 함께 하셔서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 당신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알게 하소서.

혼란스럽고 의심하는 이들의 하나님,  
우리의 의심 속에 함께 하시고, 시끄러운 침묵을 가라앉히시며, 눈부신 어둠을 밝히소서. 우리의 눈 앞에 길잡이의 빛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점화하는 불로 인도하소서.

아멘.

## 활동계획

### 어둠 속에서 걷기

이 활동의 목표는 특히 불확실하거나 어려운 시기를 지날 때에 공동체 안에서 인도, 신뢰, 지지의 주제를 묵상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준비물:** 반다나 스카프 또는 작은 천 조각 (손수건 등 눈가리개로 사용가능한 천)

### 1 | 준비

- 참가자들을 장애물이 없는 안전한 공간에 모이게 하세요.
- 눈가리개로 사용할 반다나 스카프 또는 작은 천 조각을 준비하세요.

### 2 | 지원자 선택

두 명의 지원자를 요청하세요: 한 명은 눈가리개를 착용하고 다른 한 명은 안내자가 됩니다.

### 3 | 활동

- 선택된 지원자에게 눈가리개를 착용하게 하여 시야를 차단합니다.
- 안내자: 안내자는 눈가리개를 착용한 사람을 안전하게 안내해야 하며, 차분한 목소리로 방향을 지시합니다 (예: “앞으로 한 걸음 나가세요,” “오른쪽으로 돌아가세요,” 등). 안내자는 눈가리개를 착용한 사람을 만지면 안되지만, 안심할 수 있도록 가까이 있을 수 있습니다.

## 4 | 경험에 대한 토의

활동이 끝나면 모두 모여서 토의 세션을 진행합니다. 참가자들에게 감정과 관찰을 나누도록 격려하며 다음 질문을 해보세요.

- 눈가리개를 착용한 사람: 어둠 속에서 걷는 느낌은 어땠나요? 어떤 감정이나 생각이 들었나요?
- 안내자: 눈가리개를 착용한 사람을 이끄는 것은 어땠나요? 신체적 접촉 없이 방향을 제공하는 느낌은 어땠나요?
- 관찰자: 활동 중에 어떤 점을 주목했나요? 안내자와 눈가리개를 착용한 사람 간의 역동성은 어떻게 전개되었나요?
- 개인적 성찰: 우리는 때때로 눈가리개를 착용한 사람처럼 길을 잃거나 불확실함을 느끼곤 합니다. 하나님이 어둠 속에서 여러분을 돕기 위해 사용하는 안내자는 무엇인가요?
- 공동체 성찰: 어떻게 때때로 우리는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지원을 제공하는 안내자가 될까요? 우리 공동체 내에서 어둠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이며, 그들에게 어떻게 안내와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세션을 마무리하면서 삶의 여정에서 도움을 주는 안내자이자 동시에 신뢰하는 참여자가 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십시오. 참가자들에게 이 활동에서 얻은 통찰을 일상 생활에 적용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공동체의 지지와 지원을 키우도록 격려하십시오.

7일차

## 믿음으로 세상을 향해 나아가기

도리 고먼, 미국 YMCA, 미들 테네시

### 연합 찬양 예배

아래의 내용은 YWCA/YMCA가 올해의 세계 기도 주간 동안 또는 종료 시기에 주제인 '자연의 요소들을 통해 믿음으로 나아가기'에 기반하여 지역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가이드입니다.

#### 00:00 | 환영 및 소개

인도자는 참가자들을 환영하고 그들의 상황에 적절한 방식으로 예배를 소개합니다. 다음은 제안된 소개입니다.

지난 주간 우리는 세계 기도 주년을 기념하면서 모두가 '자연을 통해 믿음으로 나아가기'에 초대되었습니다. 우리는 물, 땅, 불을 함께 지나왔고, 오늘은 '세계를 향해 믿음으로 나아가기'라는 주제로 이 주년을 마무리하면서 '바람'에 초점을 맞출 것입니다.

#### 00:03 | 개회 기도

**인도자 :**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신 창조주이자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자비,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다함께 :** 여러분과도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인도자 :** 오늘은 하나님이 행하신 날입니다.

**다함께 :** 자유롭게 충만한 삶을 기념합시다!

## 00:04 | 노래 — ‘VAPOR’ — 마이클과 리사 군고르와 선한 목자 음악 모음

이 찬양은 예배 내용의 유형에 맞춰 주제에 잘 어울리는 것을 제안한 것입니다.

([youtu.be/mXJNjeVmuF8](https://youtu.be/mXJNjeVmuF8))

다른 찬양을 사용하고 싶을 경우 다른 찬양을 선택하셔도 됩니다.

일부 대안이 될 수 있는 찬양은 [ymca.int/week-of-prayer](https://ymca.int/week-of-prayer)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00:09 | 뉴질랜드의 주기도문

작성자: 빌 월리스, 아오테아로아/뉴질랜드

**다함께 :**

오 가장 자비로운 생명 주님,  
우리가 당신을 존경하고 찬양하게 하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정의, 평화, 사랑의 새로운 질서를 세우게 하소서;  
우리가 성장에 필요한 것을 주시고,  
다른 사람을 용서함으로써 용서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시험의 때에 우리를 강하게 하시어 모든 악을 저항할 수 있게 하소서,  
모든 부드러움, 강함과 사랑은 주님의 것입니다, 이제부터 영원까지.  
아멘.

## 00:10 | 세 명의 낭독자

세 가지 성경 구절 (참가자들의 다양한 교차 섹션을 대표하는 낭독자를 선택하세요) –  
이 서비스를 주간 동안 진행하기로 선택한 경우, 그날의 성경 구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구약: 열왕기상 19:11-12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이제 곧 나 주가 지나갈 것이니, 너는 나가서, 산 위에, 주 앞에서 서 있어라.”  
크고 강한 바람이 주님 앞에서 산을 쪼개고, 바위를 부수었으나, 그 바람 속에 주님께서 계시지 않았다.  
그 바람이 지나가고 난 뒤에 지진이 일어났지만, 그 지진 속에도 주님께서 계시지 않았다.  
지진이 지나가고 난 뒤에 불이 났지만, 그 불 속에도 주님께서 계시지 않았다. 그 불이 난 뒤에, 부드럽고  
조용한 소리가 들렸다.

### 시편: 시편 104:1-3

내 영혼아, 주님을 찬송하여라.  
주, 나의 하나님, 주님은 더없이 위대하십니다.  
권위와 위엄을 갖추셨습니다.  
주님은 빛을 옷처럼 걸치시는 분,  
하늘을 천막처럼 펼치신 분,  
물 위에 누각의 들보를 놓으신 분,  
구름으로 병거를 삼으시며,  
바람 날개를 타고 다니시는 분.

## 신약: 요한복음 3:5-8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 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영에서 난 것은 영이다. 너희가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내가 말한 것을, 너는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분다. 너는 그 소리는 듣지만,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는 모른다.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은 다 이와 같다.”

## 00:16 | 우리의 호흡으로 기도하기

이 기도는 모두가 함께 기도할 때, 인도자의 안내와 시범을 통해 청중이 다함께 호흡을 마시고 내쉴 수 있도록 천천히 읽으며 하는 기도입니다. Cole Arthur Riley의 Black Liturgies에서 각색한 내용입니다.

인도자: 우리 창조주께서 첫 번째 인간에게 생명을 불어 넣으셨고, 그같은 숨결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그리고 우리를 통해 이 세상 가운데 살아 움직이고 계십니다. 함께 소리 내어 각 기도문 사이 사이에 천천히 숨을 들이쉬고 내쉬며 기도하는 자리로 모두를 초대합니다.

### 인도자: 숨을 들이쉬세요

다함께: 우리는 고립에 저항합니다.

### 인도자: 숨을 내쉬세요

다함께: 우리는 절망에 맞서 싸웁니다.

### 인도자: 숨을 들이쉬세요

다함께: 우리는 우리의 몸에 뿌리를 내립니다.

### 인도자: 숨을 내쉬세요

다함께: 이 숨은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 인도자: 숨을 들이쉬세요

다함께: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조용한 음성을 기억합니다.

### 인도자: 숨을 내쉬세요

다함께: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 00:20 | 창의적 예술로 드리는 예배

이 섹션에서는 예배를 더욱 풍성하게 하기 위해 창의적인 예술을 선보이는 시간을 가집니다. 여기에는 우리의 일상과 세상으로 나아가는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조용한 음성에 초점을 맞춘 몽타주, 목상, 시, 시각 예술 또는 무용 등을 위한 사전 준비가 필요합니다.

## 00:25 | 설교

열왕기상 19:11-12를 본문으로 하여 ‘믿음으로 세상을 향해 나아가기’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는 지역 YMCA 리더 또는 기독교 목사를 초빙합니다. 앞서 낭독한 다른 구절도 사용할 수 있지만, 열왕기상을 추천합니다.

## 00:35 | 묵상 및 집중 기도 시간

이번 세션에서는 반주 음악을 계속해서 연주하며 진행하셔도 좋습니다.  
예배 인도자가 다음과 같이 말하며 이 시간을 시작합니다:

열왕기상 18장을 묵상하며, 영국의 랍비이자 작가인 조나단 삭스는 이렇게 썼습니다:  
“최고의 권력은 무력한 자를 돌봅니다. 생명의 창조자는 생명을 사랑합니다. 우주를 존재하게 한 목소리는 여전히 작고 조용하여, 거의 속삭임과 같고, 하나님의 음성을 감지하기 위해서는 주의 깊게 들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하는 시간을 마치며, 우리는 세상의 분주함과 걱정 속에서 하나님께 귀 기울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이 과정을 함께 실천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이는 이렇게 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조용히 집중하는 것은 예배 시간에만 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유혹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소망은, 조용히 하나님께 귀 기울이는 것이 우리의 일상적인 리듬의 일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루를 보내고 세상으로 나아갈 때, 주변의 정적과 소음을 잠잠하게 하고, 지진과 강한 바람 속에서도 하나님의 속삭임과 연결될 수 있는 능력을 갖는다면 어떤 모습일까요?

다시 한 번 함께 천천히 숨을 들이쉬고 내쉬며, 똑바로 앉고 발을 바닥에 딛어 보세요. 여러분이 앉아 있는 자리의 느낌에 주의를 기울이고, 여러분의 몸이 편히 쉴 수 있는 자리를 찾아보세요. 제가 이 말을 할 때 천천히 숨을 들이쉬고 내쉬며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그 후에는 함께 침묵 속에 앉아 있겠습니다.

그리고 생각이 다른 곳으로 가거나, 이웃이나 방 안의 소음으로 인해 방해받을 때, 아주 부드럽게 다시 조용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로 돌아오도록 초청합니다.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인 줄 알라.’**

(잠시 멈춤 — 천천히 숨을 들이쉬고 내쉬기)

**‘가만히 있어 내가 있음을 알라.’**

(잠시 멈춤 — 천천히 숨을 들이쉬고 내쉬기)

**‘가만히 있어 알라.’**

(잠시 멈춤 — 천천히 숨을 들이쉬고 내쉬기)

**‘가만히 있어라.’**

(잠시 멈춤 — 천천히 숨을 들이쉬고 내쉬기)

**‘있어라.’**

(잠시 멈춤 — 천천히 숨을 들이쉬고 내쉬기)

(2분간의 침묵을 허용합니다 — 긴 시간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함께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00:40 | 노래 — “STILL SMALL VOICE” — 요한 글리든, 솔리 데오 글로리아

선택된 이 찬양은 예배의 주제, 특히 “자연의 요소들을 통해 믿음으로 나아가기”과 잘 어울리는 찬양의 형식을 제안합니다. ([youtu.be/tD9dlqhOCVg](https://youtu.be/tD9dlqhOCVg))

이 곡이 아닌 다른 찬양을 사용하고 싶다면,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심에 초점을 맞춘 곡을 선택하세요. 대신할만한 다른 찬양들을 [ymca.int/week-of-prayer](https://ymca.int/week-of-prayer)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 00:44 | 축도 — 길이 멀 때의 축복

by [케이트 보울러](#)

### 인도자:

완전한 정적의 순간에 우리는 복이 있나니,  
그곳은 목소리가 메아리치고 쌓이고 울려 퍼지는 텅 빈 공간에서  
우리가 쉴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고, 온전해질 수 있는 공간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놀랍게도 복이 있으니,  
그것은 우리의 힘이 다하는 바로 그 순간이  
하나님의 힘이 시작되는 지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함께: 아멘

## 00:45 | 마침

# 감사의 글

- 옌스 크리스찬 커크 목사 ( 덴마크 YMCA/YWCA 교장)
- 도리 고르만 (미들 테네시 YMCA, Y-USA 협회 목사)
- 사라 즈본니코바 (체코 공화국 YMCA 국제 비서 )
- 조슈아 해스팅스 (잉글랜드 및 웨일스 YMCA 브랜드 및 디자인 매니저)
- 라우라 아빌레스 (콜롬비아 쿤디오 YMCA,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해 YMCA)
- 솔로무지 마부자 (전 남아프리카 YMCA 회장)
- 던컨 초드리 (세계 YMCA 거버넌스 매니저)
- 팀 태이루 목사 (리더/수석 목사, 맘바사 튜더의 펠로우십 침례교회)
- 보니 그레츠너 (콘텐츠 및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매니저, 세계 YMCA)
- 존 필립스 (커뮤니케이션 국장, 세계 YMCA)
- 레베카 산기타 다니엘 목사 (영국 루터교 협의회 목회 및 개발 책임자, 영국 루터교회 목사)
- 다니엘라 젤라야 라우달레스 (프로젝트 전문가, 세계 YWCA)
- 스페인어 번역: 마누엘 키테로
- 프랑스어 번역: 장-프랑수아 델타일
- 노르웨이 교회 원조(NCA) 지원
- 디자인: 조슈아 해스팅스
- 성경 읽기 계획: Ecumenical Working Group für Bible Reading (Ökumenische Arbeitsgemeinschaft für Bibellesen), Caroline-Michaelis-Str. 1, 10115 Berlin

성경 구절은 새번역에서 발췌하였습니다.

면책 조항: 이 소책자에 수록된 여러 기여자들의 견해는 세계 YWCA나 세계 YMCA의 입장을 반드시 반영하지 않습니다. 이 소책자에 포함된 일러스트레이션은 오직 세계 YWCA-YMCA 기도의 주간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해야 합니다.

# 2025 성경 읽기 계획

1월	
1	시편 19
2	누가복음 3:1-6
3	누가복음 3:7-14
4	누가복음 3:15-20
5	시편 72
6	누가복음 3:21-38
7	누가복음 4:1-13
8	누가복음 4:14-21
9	누가복음 4:22-30
10	누가복음 4:31-37
11	누가복음 4:38-44
12	시편 4
13	누가복음 5:1-11
14	누가복음 5:12-16
15	누가복음 5:17-26
16	누가복음 5:27-32
17	누가복음 5:33-39
18	누가복음 6:1-11
19	시편 3
20	누가복음 6:12-16
21	누가복음 6:17-26
22	누가복음 6:27-35
23	누가복음 6:36-42
24	누가복음 6:43-49
25	누가복음 7:1-10
26	시편 9
27	누가복음 7:11-17
28	누가복음 7:18-23
29	누가복음 7:24-35
30	누가복음 7:36-50
31	누가복음 8:1-3

2월	
1	누가복음 8: 4-15
2	시편 16
3	누가복음 8: 16-21
4	누가복음 8: 22-25
5	누가복음 8: 26-39
6	누가복음 8: 40-56
7	누가복음 9: 1-9
8	누가복음 9: 10-17
9	시편 18: 1-20
10	누가복음 9: 18-27
11	누가복음 9: 28-36
12	누가복음 9: 37-45
13	누가복음 9: 46-50
14	누가복음 9: 51-56
15	누가복음 9: 57-62
16	시편 18: 21-51
17	누가복음 10: 1-16
18	누가복음 10: 17-24
19	누가복음 10: 25-37
20	누가복음 10: 38-42
21	누가복음 11: 1-4
22	누가복음 11: 5-13
23	시편 15
24	누가복음 11: 14-26
25	누가복음 11: 27-32
26	누가복음 11: 33-36
27	누가복음 11: 37-54
28	누가복음 12: 1-12

# 2025 성경 읽기 계획

3월	
1	누가복음 12: 13-21
2	시편 6
3	누가복음 12: 22-34
4	누가복음 12: 35-48
5	누가복음 12: 49-53
6	누가복음 12: 54-59
7	누가복음 13: 1-9
8	누가복음 13: 10-17
9	시편 10
10	레위기 1: 1-9
11	레위기 8: 1-13
12	레위기 9: 1-24
13	레위기 16: 1-22
14	레위기 18: 1-6, 19-24
15	레위기 19: 1-18
16	시편 25
17	레위기 19: 31-37
18	레위기 25: 1-12
19	레위기 25: 35-43
20	누가복음 18: 31-43
21	누가복음 19: 1-10
22	누가복음 19: 11-27
23	시편 34
24	누가복음 19: 28-40
25	누가복음 19: 41-48
26	누가복음 20: 1-8
27	누가복음 20: 9-19
28	누가복음 20: 20-26
29	누가복음 20: 27-40
30	시편 84
31	누가복음 20: 41-47

4월	
1	누가복음 21: 1-4
2	누가복음 21: 5-19
3	누가복음 21: 20-28
4	누가복음 21: 29-38
5	누가복음 22: 1-6
6	시편 22: 1-22
7	누가복음 22: 7-23
8	누가복음 22: 24-30
9	누가복음 22: 31-38
10	누가복음 22: 39-46
11	누가복음 22: 47-53
12	누가복음 22: 54-62
13	시편 22: 23-32
14	누가복음 22: 63-71
15	누가복음 23: 1-12
16	누가복음 23: 13-25
17	누가복음 23: 26-31
18	누가복음 23: 32-49
19	누가복음 23: 50-56
20	누가복음 24: 1-12
21	누가복음 24: 13-35
22	누가복음 24: 36-49
23	누가복음 24: 50-53
24	골로새서 1: 1-8
25	골로새서 1: 9-14
26	골로새서 1: 15-20
27	시편 116
28	골로새서 1: 21-23
29	골로새서 1: 24-29
30	골로새서 2: 1-5

# 2025 성경 읽기 계획

5월	
1	골로새서 2: 6-10
2	골로새서 2: 11-15
3	골로새서 2: 16-23
4	시편 23
5	골로새서 3: 1-4
6	골로새서 3: 5-11
7	골로새서 3: 12-17
8	골로새서 3: 18 - 4:1
9	골로새서 4: 2-6
10	골로새서 4: 7-18
11	시편 45
12	요엘 1: 1-20
13	요엘 2: 1-11
14	요엘 2: 12-17
15	요엘 2: 18-27
16	요엘 3: 1-5
17	요엘 4: 1-21
18	시편 30
19	사도행전 1: 1-14
20	사도행전 1: 15-26
21	사도행전 2: 1-13
22	사도행전 2: 14-21
23	사도행전 2: 22-36
24	사도행전 2: 37-41
25	시편 67
26	사도행전 2: 42-47
27	사도행전 3: 1-10
28	사도행전 3: 11-26
29	시편 47
30	사도행전 4: 1-12
31	사도행전 4: 13-22

6월	
1	시편 27
2	사도행전 4: 23-31
3	사도행전 4: 32-37
4	사도행전 5: 1-11
5	사도행전 5: 12-16
6	사도행전 5: 17-33
7	사도행전 5: 34-42
8	시편 118: 1-14
9	시편 118: 15-29
10	사도행전 6: 1-7
11	사도행전 6: 8-15
12	사도행전 7: 1-16
13	사도행전 7: 17-29
14	사도행전 7: 30-43
15	시편 13
16	사도행전 7: 44-53
17	사도행전 7: 54-8:3
18	사도행전 8: 4-25
19	사도행전 8: 26-40
20	사도행전 9: 1-9
21	사도행전 9: 10-19a
22	시편 28
23	사도행전 9: 19b-31
24	사도행전 9: 32-43
25	사도행전 10: 1-23a
26	사도행전 10: 23b-33
27	사도행전 10: 34-48
28	사도행전 11: 1-18
29	시편 12
30	사도행전 11: 19-30

# 2025 성경 읽기 계획

7월	
1	사도행전 12: 1-17
2	사도행전 12: 18-25
3	사도행전 13: 1-12
4	사도행전 13: 13-25
5	사도행전 13: 26-43
6	시편 103
7	사도행전 13: 44-52
8	사도행전 14: 1-7
9	사도행전 14: 8-20a
10	사도행전 14: 20b-28
11	사도행전 15: 1-21
12	사도행전 15: 22-35
13	시편 7
14	사도행전 15: 36-16: 5
15	사도행전 16: 6-15
16	사도행전 16: 16-24
17	사도행전 16: 25-40
18	빌립보서 1: 1-11
19	빌립보서 1: 12-18a
20	시편 26
21	빌립보서 1: 18b-26
22	빌립보서 1: 27-2: 4
23	빌립보서 2: 5-11
24	빌립보서 2: 12-18
25	빌립보서 2: 19-30
26	빌립보서 3: 1-11
27	시편 21
28	빌립보서 3: 12-16
29	빌립보서 3: 17-21
30	빌립보서 4: 1-9
31	빌립보서 4: 10-23

8월	
1	사도행전 17: 1-15
2	사도행전 17: 16-34
3	시편 11
4	사도행전 18: 1-22
5	사도행전 18: 23-19: 7
6	사도행전 19: 8-22
7	사도행전 19: 23-40
8	사도행전 20: 1-16
9	사도행전 20: 17-38
10	시편 14
11	사도행전 21: 1-14
12	사도행전 21: 15-26
13	사도행전 21: 27-40
14	사도행전 22: 1-22
15	사도행전 22: 23-30
16	사도행전 23: 1-11
17	시편 63
18	사도행전 23: 12-35
19	사도행전 24: 1-21
20	사도행전 24: 22-27
21	사도행전 25: 1-12
22	사도행전 25: 13-27
23	사도행전 26: 1-23
24	시편 17
25	사도행전 26: 24-32
26	사도행전 27: 1-12
27	사도행전 27: 13-26
28	사도행전 27: 27-44
29	사도행전 28: 1-16
30	사도행전 28: 17-31
31	시편 119: 49-56

# 2025 성경 읽기 계획

9월	
1	민수기 6: 22-27
2	민수기 9: 15-23
3	민수기 10: 11-36
4	민수기 11: 1-23
5	민수기 11: 24-35
6	민수기 12: 1-16
7	시편 119: 57-64
8	민수기 13: 1-3, 17-33
9	민수기 14: 1-25
10	민수기 14: 26-38
11	민수기 14: 39-45
12	민수기 17: 16-26
13	민수기 20: 1-13
14	시편 119: 65-72
15	민수기 20: 22-29
16	민수기 21: 4-9
17	민수기 21: 21-35
18	민수기 22: 1-20
19	민수기 22: 21-41
20	민수기 23: 1-12
21	시편 20
22	민수기 23: 13-30
23	민수기 24: 1-25
24	민수기 27: 12-23
25	누가복음 13: 18-21
26	누가복음 13: 22-30
27	누가복음 13: 31-35
28	시편 46
29	누가복음 14: 1-6
30	누가복음 14: 7-14

10월	
1	누가복음 14: 15-24
2	누가복음 14: 25-35
3	누가복음 15: 1-10
4	누가복음 15: 11-32
5	시편 104
6	누가복음 16: 1-13
7	누가복음 16: 14-18
8	누가복음 16: 19-31
9	누가복음 17: 1-10
10	누가복음 17: 11-19
11	누가복음 17: 20-37
12	시편 5
13	누가복음 18: 1-8
14	누가복음 18: 9-17
15	누가복음 18: 18-30
16	에스겔 1: 1-21
17	에스겔 1: 22-28
18	에스겔 2: 1-3: 3
19	시편 1
20	에스겔 3: 4-11
21	에스겔 3: 12-21
22	에스겔 3: 22-27
23	에스겔 7: 1-13, 27
24	에스겔 8: 1-11
25	에스겔 8: 12-18
26	시편 32
27	에스겔 11: 14-25
28	에스겔 12: 1-16
29	에스겔 16: 1-22
30	에스겔 17: 1-10
31	에스겔 17: 11-24

# 2025 성경 읽기 계획

11월	
1	에스겔 18: 1-3, 20-32
2	시편 62
3	에스겔 22: 1-16
4	에스겔 24: 1-14
5	에스겔 24: 15-27
6	에스겔 33: 21-33
7	에스겔 34: 1-16
8	에스겔 34: 23-31
9	시편 69: 1-16
10	에스겔 36: 16-32
11	에스겔 37: 1-14
12	에스겔 37: 15-28
13	에스겔 40: 1-16
14	에스겔 42: 15-43: 12
15	에스겔 47: 1-12
16	시편 69: 17-37
17	데살로니가전서 1: 1-10
18	데살로니가전서 2: 1-12
19	데살로니가전서 2: 13-20
20	데살로니가전서 3: 1-13
21	데살로니가전서 4: 1-12
22	데살로니가전서 4: 13-18
23	시편 110
24	데살로니가전서 5: 1-11
25	데살로니가전서 5: 12-28
26	데살로니가후서 1: 1-12
27	데살로니가후서 2: 1-12
28	데살로니가후서 2: 13-17
29	데살로니가후서 3: 1-18
30	시편 24

12월	
1	스가랴 1: 1-6
2	스가랴 1: 7-17
3	스가랴 2: 1-9
4	스가랴 2: 10-17
5	스가랴 3: 1-10
6	스가랴 4: 1-14
7	사무엘상 2: 1-10
8	스가랴 5: 1-11
9	스가랴 6: 1-8
10	스가랴 6: 9-15
11	스가랴 7: 1-14
12	스가랴 8: 1-13
13	스가랴 8: 14-23
14	누가복음 1: 46-55
15	스가랴 9: 9-12
16	스가랴 12: 9-13: 1
17	스가랴 14: 1-11
18	말라기 1: 1-5
19	말라기 1: 6-14
20	말라기 2: 1-9
21	누가복음 1: 68-79
22	말라기 2: 10-16
23	말라기 2: 17-3: 12
24	말라기 3: 13-24
25	시편 2
26	누가복음 2: 29-32
27	요한복음 1: 1-5
28	요한복음 1: 6-8
29	요한복음 1: 9-13
30	요한복음 1: 14-18
31	시편 29

세계 YMCA



Chemin de Mouille-Galand 1, 1214 Vernier  
Geneva, Switzerland

[ymca.int](http://ymca.int)

Twitter & Instagram: [@WorldYMCA](https://twitter.com/WorldYMCA)

Facebook: [facebook.com/ymcas](https://facebook.com/ymcas)

세계 YWCA



L'Ancienne-Route 16, 1218 Le Grand-Saconnex  
Geneva, Switzerland

[worldywca.org](http://worldywca.org)

Twitter & Instagram: [@worldywca](https://twitter.com/worldywca)  
Facebook: [facebook.com/worldywca](https://facebook.com/worldywca)